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16세기, 이콘, 베나키 박물관,
아테네, 그리스

성화 해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께서 불을 맞대고 서로 간에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기 예수님은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들고 있으며 다른 손으로는 성모님의 턱을 어루만지고 있다. 상단에 있는 두 천사는 성모자가 나누는 사랑을 바라보며 시종드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황금색 배경은 성모자가 나누는 사랑의 영원 불변함을 상징한다.

입당송

하례하나이다, 거룩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제1독서 민수 6,22-27

화답송 시편 67(66),2-3.5.6과8(◎2ㄱ)

◎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주님의 길이, 만민에게 주님의 구원이 알려지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니, 주님께서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
- 주 하느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

이 모두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리라. 세상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갈라 4,4-7

복음환호송 히브 1,1-2ㄱ

◎ **알렐루야.**

-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

복음 루카 2,16-21

영성체송 히브 13,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로다.

빈곤 퇴치와 평화 건설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전하며, 이 담화를 통해 '빈곤 퇴치와 평화 건설'이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빈곤은 흔히 전쟁을 비롯한 분쟁들을 조장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에서도 빈부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그 도덕적 의미

빈곤은 흔히 인구 증가의 결과로 간주되어 출산율 감소를 위한 국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빈곤 퇴치의 명목으로 수백만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발전한 선진국들 중에는 높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이 더 좋은 발전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는 빈곤을 조장하는 요인이 아니라 일종의 자산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또 다른 분야는 말라리아, 결핵, AIDS 등 유행병과 관련됩니다. 이러한 질병은 부를 생산하는 인구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AIDS와 싸우는 일은 특히 그 바이러스의 확산과 연관된 도덕적 문제들을 함께 다루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에 온전히 부합하는 성윤리를 증진하는 교육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가난한 민족들도 필요한 의약품과 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모

든 사람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국제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빈곤 퇴치를 위한 세 번째 분야는 아동 빈곤입니다. 오늘날 절대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절반 가량이 어린이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고통받게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빈곤에 대해 속고 한다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들에 대한 배려, 교육의 의무, 백신과 건강 검진과 식수에 대한 접근, 환경 보호와 특히 가정과 안정된 가족 관계를 수호할 사명 등이 있습니다. 여성과 어머니의 존엄이 보호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는 바로 아이들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네 번째 분야는 군비 축소와 발전의 상호 관계입니다. 지나친 군비 지출의 증가는 무기 경쟁을 가속화하고 저개발과 절망의 고립 지역을 만들어 낼 위험이 있어서, 역설적으로 불안과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흔히 불의에서 비롯되는 분쟁의 근본 이유들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과감한 자기 비판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국제 관계의 향상을 위해서는 군비 지출을 줄이는 데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절약된 자원은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과 민족들을 돕는 발전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빈곤 퇴치와 관련된 다섯 번째 분야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태롭게 하는 현재의 식량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특징은 식량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량 접근의 어려움과 여러 다른 형태의 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필요와 비상상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년에 걸쳐 상대적 빈곤의 모든 지표가 더욱 커져만 가는 빈부 격차를 가리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더 풍요로운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기술의 진보와 가난한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산품과 원자재의 가격에 비해 급등하는 공산품 가격의 변동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빈국 인구의 대다수가 저소득 고물가라는 역효과를 통하여 이중으로 소외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계적 연대와 빈곤 퇴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법률적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 공동체와 특히 가난한 나라들은 조화로운 전략을 세우고 이행함으로써 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법률 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활동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도 필요하지만 소득 창출의 필요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인당 국민 소득 증가가 정치·경제 활동의 궁극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는 여전히 기아 퇴치와 절대 빈곤 퇴치를 이룩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자산 가치는 전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수익 창출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 창출은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고, 물질적 빈곤 퇴치가 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의무를 반드시 유념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필 수 있으려면,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공무원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접근, 그리고 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 사회의 기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는 충분한 여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빈곤 문제와 이를 다루기 위해 채택해 온 수단들 사이에 있는 불균형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균형은 문화적·정치적 질서뿐만 아니라 정신적·도덕적 질서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빈곤의 피상적이고 도구적인 원인만 생각하고 탐욕이나 편견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원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깊은 형제애로 살아가고 진정한 인간 성장의 여정에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동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모든 사람이 불의한 체계가 낳은 왜곡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그 자체가 평화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세계화는 분열과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개인과 모든 이의 선익을 추구하는 심오한 연대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계화를 빈곤 퇴치를 위해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의와 평화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현재의 세계화 현상과 인간의 빈곤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 신중히 지켜보면서,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에 관련된 이 사회 문제의 새로운 측면들을 그 폭뿐만 아니라 그 깊이도 면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교리의 원칙들은 빈곤과 세계화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고, 평화 건설을 향한 행동으로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 가운데에, 가장 으뜸인 사랑에 비추어 초기 교회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교 전통 전체에 걸쳐 입증되는(사도 4,32-36; 1코린 16,1; 2코린 8-9; 갈라 2,10 참조)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을 상기해 보는 것이 시의적절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 마음속에 메아리치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 하신 평화의 임금님의 명령을 계속 듣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당부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온 인류 가족에게 자신이 창의적인 연대의 행동을 통하여, 곧 “남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활 양식, 생산과 소비 형태의 변경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와 선의의 모든 사람이 더 넓은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가능한 모든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빈곤 퇴치는 평화 건설이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교황 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과 위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해에 하느님
께서 베풀어주
시는 크신 은총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다소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과 역경 중에서도 더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옳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시편 24,3-5).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망하고 옳지 않은 곳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마태 5,3)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해서 삶의 길을 거기에서 찾고 위로와 희망도 그 안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고, 보다 겸손한 마음과 여유로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9년 새해 첫날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